

‘대한가정학회’의 역사는 한국 가정학의 역사를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기관에서 가정학을 가르친 것은 1929년 이화여전에 가사과가 창설되면서 시작되었다. 해방 후 전문학교의 가사과가 가정과 또는 가정교육과로 발전하였으며 1960년대부터 또 다시 독립된 3~4개의 과로 구성된 가

개로 증가하였다. 초기의 가정학과 혹은 가정교육학과에서 분화되어 현재 가정대학 또는 생활과학대학에서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 가정관리학과, 가정교육학과, 아동학과, 주거학과 등이 개설되어 있다.

1960년대는 가정학의 초기 발달단계로 연구에 종사할 인적 자원이 많지 않아 연구활동도 미비하였다. 그러나 60년대 후반에 종합대학교에 여러 가정대학이 설립되고, 가정학과가 여러 분야로 분화되면서 각 영역의 내용이 심화되면서 전문성을 갖추게 되었고, 각 대학에 대학원 과정이 개설된 후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연구를 할 수 있는 틀이 잡히게 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부터는 대학원의 석·박사과정이 증설되면서 연구의 양적인 증가를 보였고 외국에서 교육을 받은 학자들이 국내에 정착하면서 실증적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가정학이 여러 분야로 분화되고 연구가 심화됨에 따라 각각의 독립된 학회가 창립되었다. 가정학자들이 주축을 이루면서 학술 활동을 하는 학회로는 한국영양학회, 한국식생활문화학회, 한국아동학회, 한국가정관리학회, 한국소비자학회, 한국가족학회, 한국가정과학회 등이 있다. 대한가정학회는 가정학의 여러 분야가 함께 참여하여 가정학 전체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명실공히 가정학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47년 창립 ... 63년 사단법인 등록

〈연혁〉 대한가정학회는 사회일반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가정학을 연구 보급하여 가정생활의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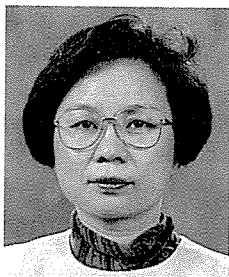
회원 1천2백명 ... 내년에 「50년사」 발간 대한가정학회

대한가정학회는 1947년 창립되어 초대회장 조기홍씨를 비롯해 현재 27대 회장까지 이어오면서 49년간 학술대회를 비롯한 왕성한 연구활동을 계속해오고 있다.

전체회원 1천2백여명으로 내년 창립 50돌을 맞는 가정학회는 제9회 아시아지역 가정학회 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대한가정학회 50년사」도 발간할 계획이다.

정대학으로 승격되었다. 가정교육학과를 졸업한 많은 인재들은 중·고등학교 가정교사로서 우리나라 여성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그의 가정학 전공자들은 생활의 과학화, 합리화라는 사회적 과제를 수행하는 여성 지도자로서 활약하였다.

가정대학은 1960년대에 3개 대학에 불과하던 것이 1970년대에는 4개 대학, 1980년대에는 7개 대학으로 증가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29개 가정대학이 존립하고 있다. 학과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여 1976년에 81개이던 것이 1986년에는 1백50개 그리고 1991년에는 1백85



趙福姬

(경희대 가정대 아동·주거학과 교수)

1947년 성신여고에서 창립되었다. 조기홍(전 성신여자대학교 학장) 초대 회장이 선출된 후 표경조, 최이순, 현병진, 주월영, 현기순 등 역대 회장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대내외적 발전을 거듭하며 현재 27대 회장으로 이어져 내려왔다. 초기에 국가의 경제적 재건에 발맞추어 학회는 농촌가정의 계몽사업을 활발히 하였으며, 전시회와 윌레회의 성격으로 이어지던 연구활동은 1979년부터 춘계와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1959년에는 「대한가정학회지」를 창간하였고, 1963년에는 학회가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었다. 1955년부터는 미국가정학회에, 1958년에는 국제가정학회에 가정학자들이 정식회원으로서 참석하기 시작했고, 국제 가정생활 지도자 강습에도 대표단이 참가하는 등 국제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특히 이기열교수가 아시아지역 가정학회 2대 학회장이 된 이래 1995년에 다시 문수재회장이 선출되어 아시아지역에서 한국 가정학회가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회원과 조직〉 회원의 구성은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평생회원, 명예회원 등으로 되어 있고 정회원 중에서 만 40세 이상의 대학 부교수인 경우에는 평생회원이 될 수 있다. 현재 전체 회원수는 1천2백여명에 이르고 있다. 임원진은 회장, 부회장 2명, 총무, 재무, 상임이사 9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 학술지 간행을 전담하는 편집위원회에 위원장과 위원을 두고 있다.

본 학회 산하에는 가정학특별위원회, 국제부위원회, HEIB 등이 있다. 1990년에 구성된 가정학특별위원회는 가정학의 발전을 위한 특별과제를 선정하여 연구하고 있으며, 국제부위원회는 국제가정학회와 긴밀한 교류를 하고 있다.

〈표〉 대한가정학회 학술대회의 주제

연 도	내 용
1990	한·일가정학회 학술대회, 사회변천에 따른 가정학 영역
1991	가정학과 사회윤리, 가정학과 사회윤리-실천적 방향
1992	세계 경제의 변화와 가정생활, 인간생활과 환경문제
1993	한국의 가정-오늘의 문제와 내일의 과제, 가정학 전공자의 취업과 전망
1994	미래사회와 가정, 미래사회와 가정학의 발전방향
1995	지방화시대와 가정복지, 교육개혁과 가정학

또한 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정학자들의 정보교환을 위해 HEIB(기업내 가정학자모임)를 결성하여 회원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의 각 지역마다 가정학회 회원들이 정기 모임과 학술 발표를 수행하고 있다.

「가정학연구 최신정보」 3집 발간

〈주요사업〉 본 학회는 학회지 발간, 장학금 지급, 국제회의 참석, 가정생활에 관한 법규, 생산품 기준 심의 및 연구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학술지로는 「대한가정학회지」를 발간하고 있다. 1959년에 창간된 학회지는 1960년대까지 연 1회씩 발간하였다. 1970년부터 학술지 간행사업을 강화하여 연 2회씩 간행하다가 1973년에 연 4회, 1995년에 연 5회, 그리고 1996년부터는 연 6회 간행하고 있으며 현재 통권 33권 6호(통권 106호)에 이르고 있다. 그 외에도 소식지를 발간하여 회원들의 활동과 학계의 동정, 그리고 가정학의 새로운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학술대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있다. 본 학회는 최근 사회적 요구에 따라 요청되는 주제들을 채택하여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표참조), 특히 1995년 학술대회에서는 '지방화 시대와 가정복지', '교육개혁과 가정학'을 주제로 하여 학계와 사회일반에 관심을 모았고,

오는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사회정의와 가정의 역할'을 주제로 할 예정이다.

또한 학회의 차원에서 연구업적을 정리하는 작업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1977년 학회 창립 3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가정학 연구의 최신 정보 I」을 발간하여 각 분야의 국내외 연구결과들을 소개하였다. 1984년에 「가정학 연구의 최신 정보 II」를, 1990년에는 「가정학 연구의 최신 정보 III」를 발간하였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최신 연구경향에 대한 자료집을 계속 펴낼 계획이다.

교육부에서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마다 가정학회에서는 자문과 건의를 하였다. 그리하여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에 남녀 공동 필수로 '가정' 과목을 이수하게 하여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가정'을 배우고 있다. 이것은 미래사회에서의 남녀 평등의식과 가정생활의 중요성을 고취시키는데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1994년 유엔이 정한 '세계 가정의 해'를 맞이하여 대한가정학회는 여러 관련학회와 합동으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여 가족과 사회의 공동발전을 위한 가족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여기에 참가하였던 학회들이 모여 '가족관련학술단체협의회'를 정식으로 결성하여 복지사회에서의 가족정책 활성화를 위한 공동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는데 초대 회

장으로 대한가정학회 회장이 맡게 되었다. 가족관련학술단체협의회 제1차 학술대회 주제는 '삶의 질 선진화와 가족 정책'이었다.

가정학회는 국제 학술교류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학회 초창기부터 회원들이 외국 학회에 참가하여 많은 연구 논문들을 발표해왔으며, 1994년 영국의 웨일즈대학에서 개최된 국제가정학회 각국 대표자 회의에 문수재교수(현 아시아지역 회장), 손경희교수(현 세계가정학회 이사), 유명주교수(현 대한가정학회 회장)가 참여하여 각국의 가정학의 활동상황과 분야별 사업보고, 그리고 국제가정학회의 미래의 발전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일본의 기타큐우슈우에서 열렸던 제5차 여성회의에서는 유명주 현 회장의 '고령화 사회와 가족문제'에 대한 기초논문 발표가 있었다.

내년 「아시아지역 총회」 서울 유치

〈현행과제와 미래의 전망〉 1994년 미국에서 개최된 Scottsdale Meeting에서 '21세기를 향한 가정학의 정체성 확립'이 논의된 바 있다. 이 주제에서 보듯이 최근 여러 학자들은 가정학 철학의 정립, 학제적 연구의 활성화, 산학협동 연구의 활성화, 가정학의 홍보 등이 공통 관심사이다.

현재 한국의 가정학자들은 이러한 주

제를 갖고 학제적 모임을 갖고 있으며 가정학의 발전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정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미국가정학회는 '가족 및 소비자학회 (American Association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 로 개칭한 바 있다. 1997년이면 본 학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한다. 그 때에 맞추어 제9차 아시아지역 가정학회(Asian Regional Association of Home Economics) 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기념사업의 하나로 「대한가정학 50년사」 출판 계획과 아울러 가정학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에게 공로상도 수여할 예정이다. ㉞

● 해외단신

허블우주망원경이 명왕성 표면 촬영

태양계에서 가장 먼 행성인 명왕성의 상세한 표면사진이 허블우주망원경에 처음 잡혔다고 미 항공우주국(NASA)이 밝혔다.

NASA는 명왕성이 전체적으로 얼음으로 뒤덮인 가운데 양극은 밝게 빛나는 빙관(氷冠)모양이었으며 적도부분은 어두운 색을 띠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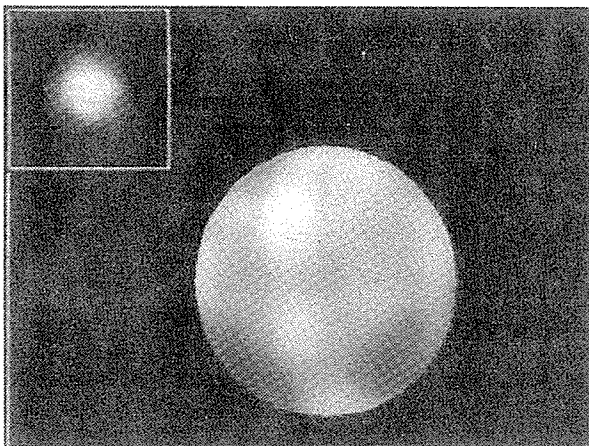
달의 3분의 2 크기이지만 달보다 1천2백배나 멀리 떨어져 있는 명왕성은 그동안 지

구에서 망원경으로 관측하면 단지 하나의 점으로 보일뿐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표면 사진을 보면 명왕성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촬영팀장인 앨런 스텐박사는 "우

주선을 타고 명왕성에 가보면 깜짝 놀랄 것"이라며 "이들 사진만으로도 호기심을 자극하는 훌륭한 재료가 많다"고 말했다. 스텐박사는 "명왕성 표면에는 매력적인 방식으로 함께 연결돼 있는 많은 지역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분명히 얼음 모자"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은 감질나는 첫 사진이므로 명왕성을 보다 자세히 관측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사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명왕성은 태양계 행성중 인공위성이 탐사하지 못한 유일한 행성으로 과학자들은 21세기 초에 가서야 신비를 풀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지난 3월7일 미항공우주국이 공개한 명왕성의 사진. 작은 사진(위)은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찍은 것이고 큰 사진은 컴퓨터를 통해 확대한 명왕성의 지표 모습이다.